

생의 의미 측정도구의 개발 II*

최순옥 · 김숙남 · 신경일 · 이정지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듯하나 생명공학과 첨단 의료기술의 지나친 기술화와 상업화로 인해 생명 본래의 신성하고 거룩한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인간의 생명을 돌보는데 있어 생명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과학만능주의를 중시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인간을 육체, 정신 및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은 경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사회적 시류 이면에 인간의 정신적, 존재론적 차원과 그 의미까지를 포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총체적 돌봄에 대한 관심 또한 급부상하고 있다. 총체적인 돌봄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돌보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감정, 가치, 개인적인 의미들이 건강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고통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통을 제거의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인간존의 조건으로 접근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참된 인간의 모습을 완성하도록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상자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Dossey 등(2000)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의 인생은 한층 풍요해지며 여러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대상자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의 의미란, 철학적으로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Frankl, 1969; Fabry, 1974)을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있고 의미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Chang & Burbank, 2000). 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종종 외부세계의 사건이나 체험에 의해 환기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패와 불운, 빈민과 고통, 병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뚜렷한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실존적 공허감에 빠지기 쉽다.

이렇듯 생의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며, 다양한 현장에서 생의 의미를 상실한 대상자를 도와야 하는 간호사에게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들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현재 그 사람이 가진 생의 의미수준과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생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도구로는 Crumbaugh & Maholic(1964)이 창안한 인생목적 검사(Purpose In Life ; PIL)와 Lee, Shin, Choi & Kim(2002)이 개발한 생의 의미 측정 도구(Meaning In Life ; MIL)가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구로 Burbank(1988)의 것과 Choi, Kim, Shin, Lee & Jung(2003)이 개발한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EMIL)가 있다. PIL은 Frankl의 이론을 기초로 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기는 했으나

주요어 : 생의 의미

1)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투고일: 2005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05년 5월 30일

의미충족의 정도 또는 의미실현의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포괄적인 생의 의미를 측정하기에는 개념이 협소하고 문항도 외국의 도구를 번안한 것이므로 각 문항의 의미가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MIL(Lee, et al., 2002)은 생의 의미를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인간 본질의 실현’으로 정의하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6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그러나 MIL은 개발당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과정에서 자료수집 대상자가 일부 몇 개의 지역에 국한되었고, 제 3의 생의 의미 관련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했으며 또한 문항수가 많아 대학생을 제외한 일반 성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골고루 표집하여 사용이 편할 뿐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의 의미 측정도구의 개발은 일반인들의 생의 의미 수준을 파악하고, 또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울, 절망, 무기력감 등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에 빠진 대상자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영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MIL의 제한점을 개선하고 인간본질의 실현이라는 포괄적인 생의 의미의 개념과 수정 보완된 이론적 개념 틀에 더욱 적합한 생의 의미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생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개념 틀을 구성한다.
- 생의 의미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한다.
- 개발된 문항을 성인에게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용어의 정의

• 생의 의미

생의 의미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Frankl, 1969; Fabry, 1974) 혹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있고, 의미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Chang & Burbank, 2000). 본 연구에서는 생의 의미에 대한 Frankl의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팀이 개발한 46문

항의 4점 척도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생의 의미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의 구성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에 관한 총체적이며 가치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정신의학자인 Frankl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 위에 생의 의미를 체계화하였다. Frankl은 당시 유행하던 Freud의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이론을 환원주의, 결정론적이라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 외에 영성(spirituality)을 강조하고 의지의 자유, 의미에의 의지, 생의 의미라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을 발전시켰다(Frankl, 1963, 1969). 의미요법(Logotherapy)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한 책임감과 자유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로서 인간존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둔다(Lee, 2000). 의미요법의 치료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고, 고통 받고,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전하도록 한다. 즉, 대상자가 보편적인 가치인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고통과 소외와 무의미감 같은 삶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최고의 가치인 태도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생의 의미 개념이 정신치료나 상담에 적용되자 환자나 치료대상자의 생의 의미를 파악하고 측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Frankl의 이론을 기초로 기존의 도구들이 가지는 의미전달의 제한성과 생의 의미 개념의 협소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MIL이라는 성인용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Lee et al., 2002). MIL은 Frankl의 이론을 토대로 생의 의미를 3개의 국면(의미실현의 기본전제, 의미실현의 과정: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실현, 의미실현의 결과)으로 구분하여 개념 틀을 구성하여 만들어진 도구이다. 연구결과 MIL은 10개의 요인(요인1; 자기인식 및 수용, 요인2; 미래에의 열망, 요인3; 무가치감, 요인4; 생의 목적, 요인5; 생의 만족, 요인6; 역할인식, 요인7; 사랑체험, 요인8; 가족사랑, 요인9; 헌신, 요인10; 자기초월)이 추출되었다. 제1국면인 의미발견을 위한 기본 전체에는 자기인식 및 수용(요인1)과 역할인식 요인(요인6)이 포함되고, 제 2국면인 의미실현의 과정(창조

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실현)에는 생의 목적(요인4), 헌신(요인9), 사랑체험(요인7), 가족사랑(요인8), 미래에의 열망(요인2)과 무가치감(요인3) 요인이 포함되었다. 제 3국면인 의미발견의 결과 국면에는 생의 만족(5요인)과 자기초월(요인10) 요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심층적 탐색(Choi et al., 2003; Shin et al., 2003)을 통해 새로운 개념적 틀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제 2국면인 의미실현의 과정이 창조적, 경험적 가치실현 국면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가치실현의 또 다른 국면인 태도적 가치실현은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쳐 독립된 국면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Choi et al., 2003). 따라서 가치실현의 방법 중에 태도적 가치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Frankl(1963)의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생의 의미 개념에 기초하여, 의미발견의 전제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의미발견의 과정인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의미발견의 결과인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이라는 4개의 국면으로 이루어진 생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

제 1국면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은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전제 국면으로서, 의미발견을 위한 전제란 ‘자신과 삶의 유한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여야만 한다. 즉 인간은 자기를 가치롭게 수용할 때 자기 밖에 있는 의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Fabry, 1974).

제 2국면인 ‘창조적 가치실현’은 생의 의미 발견 과정 국면으로서, 창조적 활동(노동, 취미, 임무 및 책임에의 열중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줌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직업과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창조적 가치는 삶의 목표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제 3국면인 ‘경험적 가치실현’도 생의 의미 발견 과정 국면으로서, 세상에 대한 체험(예술작품,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발견을 하는 것이다. 창조적 가치실현이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이라면 경험적 가치실현은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에너지)를 받아드리는 것이다.

4국면인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은 의미발견의 결과 국면으로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본질의 특성을 인식하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현재의 자기로부터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즉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하여 이타적이며 자신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해 수용하고 만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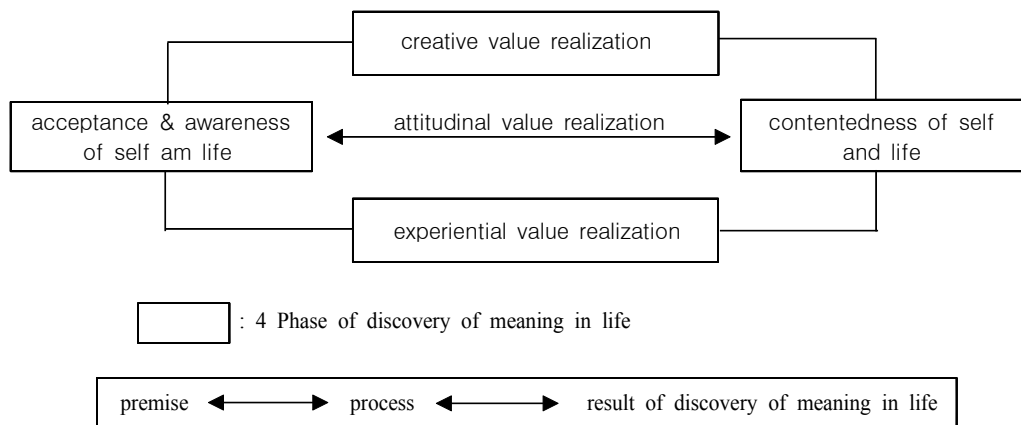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적 가치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운명을 수용하고 견디어냄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모든 국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된다.

본 연구의 생의 의미 개념틀은 <Figure 1>과 같다.

문항개발과정

• 1차 예비 문항의 작성

생의 의미에 대한 직접 경험 자료를 얻기 위해 전문가 4명(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 간호학자)과 일반 성인 6명(지역과 나이별로 고루 안배)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였으며, 면담시간은 30분정도



<Figure 1> Framework of meaning in life

소요되었다. 기존에 개발하였던 생의 의미 측정도구인 MIL (Lee et al, 2002)과 면담과정에서 얻어진 문항 및 관련문헌을 참고로 하여 한국의 성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생의 의미 4개의 국면별(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로 문항수가 비슷하게 되도록 조절하여 1차 예비문항 58개를 선정하였다.

- 내용타당도 검증 및 2차 예비문항의 선정

선정된 58개의 1차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판정하기 위해 인문학 교수 2명과 생의 의미 연구가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선정·검토하여 내용타당도 지수(index of content validity)가 80% 이상이 되는 49개 문항을 2차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 검증

-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개발된 도구(2차 예비문항 49개)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4점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20세에서 60세까지 568명의 다양한 지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경남 및 제주도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20-60세까지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표집 방법은 각 지역의 철도역 광장, 상가 밀집지역의 상인이나 소비자, 공공기관의 이용객, 일부 아파트의 주민들, 각종 단체들의 모임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집을 고루 안배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및 자료수집의 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은 4명의 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집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본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자가 평가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응답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준거타당도 검증 문항 9문항을 포함)가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종 분석은 조사 대상자 568명 중 일부 문항에 응답이 누락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56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

산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도구의 내적 일관성과 문항분석은 Scale Reliability Program을, 구성타당도는 PCA와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문항의 적합도와 각 요인의 단일 차원성 확인은 LISREL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문항의 준거타당도는 Rosenberg(1973)이 개발하고 Jeon(1974)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Lee(1995)가 수정·보완한 4점 척도의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척도를 준거변인으로 이용하여 상관계수로써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30명(40.8%), 여자가 334명(59.2%)이었고, 연령은 20대가 198명(35.1%), 30대가 139명(24.6%), 40대가 135명(23.9%), 50대 이상이 92명(16.3%)이었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107명(19.0%), 천주교가 196명(34.8%), 불교가 113명(20.0%), 무교 및 기타가 148명(26.3%)이었다.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가 32명(5.7%), 고졸이 257명(45.6%), 대졸이상이 275명(48.8%)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311명(55.1%), 미혼이 238명(42.2%), 기타가 15명(2.7%)이었으며, 직업 유무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395명(70.0%)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부산·경남이 136명(24.1%), 서울·경기가 130명(23.0%), 대구광역시는 50명(8.9%), 대전광역시 93명(16.5%), 광주광역시 96명(17.0%), 제주도가 59명(10.5%)이었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

- 문항분석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94이었고, Correlated Item-Total Correlation 계수는 .005 ~ .645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 시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계수가 .30이상인 문항을 선정기준으로 하였는데, 2차 예비문항에서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30이하인 20번 문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편이다’라는 1문항을 삭제하고 48개의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 구성요인추출 및 요인 명명

<Table 1> Factor analysis of 48 items

N=564

factor naming and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s	explained variance (%)	accumulative variance (%)
factor1 Awareness of self limitation		13.17	27.43	27.43
2. 현재의 내 자신이 불만스럽다.	.62			
3. 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33			
5.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52			
11.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다.	.67			
12. 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78			
13. 나란 존재는 불쌍하고 무력한 존재이다.	.69			
15.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46			
31. 내 삶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	.67			
42. 지나온 인생이 후회스럽다.	.66			
factor2 Wish		3.23	6.73	34.16
14. 절망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고 생각한다.	.63			
16. 삶에는 항상 내일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66			
17.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70			
18. 인생이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72			
19. 세상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73			
21.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48			
factor3 Search for goals		2.74	5.70	39.86
9. 나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8			
32. 나는 항상 나의 일에 충실해 왔다.	.74			
34.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47			
37. 나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74			
38. 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5			
39.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73			
factor4 Love experience		2.07	4.30	44.16
4. 나는 가족이나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49			
22. 나는 현재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	.70			
23. 나는 내 심정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	.56			
24. 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80			
factor5 Self transcendence		1.72	3.59	47.75
43.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62			
44. 매일 매일이 새롭다.	.51			
45. 나는 인생을 즐기는 편이다.	.52			
46. 살아있는 것이 참 고맙다고 느낀다.	.54			
47. 나는 평소에 잘 웃는 편이다.	.41			
48.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61			
49. 만일 내일 죽는다면이라도 현재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51			
factor6 Relation experience		1.27	2.65	50.40
25. 나는 행복했던 기억이 많다.	.45			
26. 나는 음악이나 자연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	.68			
27.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44			
28. 나는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76			
29. 이 세상에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다.	.57			
30.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	.39			
factor 7 Self contentedness		1.11	2.30	52.70
1. 나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	.56			
6. 나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56			
7. 나는 남 앞에서 당당하다.	.67			
8. 나는 내 또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다.	.49			
10. 내가 여성(혹은 남성)으로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	.37			
factor 8 Commitment		1.09	2.28	54.98
3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0			
35.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64			
36.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가족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55			
40. 나는 요즘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40			
41. 지금 나는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	.54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 4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법으로 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 1이상, Scree Plot의 기울기를 참조하여 요인 8개를 추출하였다. 8개 요인의 설명 분산은 54.98%이었다. 48 문항을 각 요인별로 가장 높은 적재량을 보인 문항 순으로 정리하여 명명하고, 요인별 가중치와 고유값, 설명변량 및 누적변량을 정리한 것은<Table 1>과 같다.

제 1요인에는 ‘현재의 나 자신이 불만스럽다’ ‘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다’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을 비롯한 9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자기유한성의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3.17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27.43%의 설명력을 보여 생의 의미 요인 중 가장 변량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 2요인에는 ‘절망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을 비롯한 6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소망’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3.23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6.7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3요인에는 ‘나는 항상 나의 일에 충실해 왔다’ ‘나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등을 비롯한 6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목표 추구’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2.74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5.70%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4요인에는 ‘나는 가족이나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등을 비롯한 5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사랑 체험’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2.07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4.30%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5요인에는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매일 매일이 새롭다’ ‘만일 내일 죽는다면이라도 현재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등을 비롯한 7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자기 초월’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72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3.59%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6요인에는 ‘나는 행복했던 기억이 많다’ ‘나는 음악이나 자연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 등을 비롯한 6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요인은 ‘관계체험’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27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2.65%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7요인에는 ‘나는 내 또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다’ ‘나는 남 앞에서 당당하다’등을 비롯한 5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자기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11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8요인에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가족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등을 포함하여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헌신’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09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2.28%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의 의미척도의 요인구조가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생의 의미 개념적 틀과 얼마나 합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4개 요인을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varimax법으로 회전하였다<Table 2>. 분석결과 생의 의미의 8개 요인들이 4개 국면으로 구분(1국면-1요인 ; 2국면-2,4,6요인 ; 3국면-3,8요인 ; 4국면-5,7요인)되어 개념적 틀과 합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4개 국면이 설명하는 변량은 81.82%였다.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

최종 48 문항에 대한 요인별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문항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0.71에서 0.83까지였고, 문항-총점상관계수는 0.30에서 0.65사이에 분포하였다. 최종 48문항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0.94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문항들에 대하여 도구의 단일차원성과 문항구성의 최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LISREL 8.7을 이

<Table 2> Factor matrix of rotation of meaning in life's factors

Factor/Phase	phase 1 acceptance & awareness of self & life	phase 2 creative value realization	phase 3 experimental value realization	phase 4 contentedness of self & life
factor1 (Awareness of self limitation)	<u>.94</u>	.18	.17	.19
factor2 (Wish)	.14	.25	<u>.86</u>	.23
factor3 (Search for goals)	-.02	<u>.88</u>	.16	.21
factor4 (Love experience)	.14	.16	<u>.69</u>	.47
factor5 (Self transcendence)	.15	.46	.47	<u>.51</u>
factor6 (Relation experience)	.10	.22	<u>.71</u>	.47
factor7 (Self contentedness)	.20	.26	.19	<u>.85</u>
factor8 (Commitment)	.31	<u>.77</u>	<u>.30</u>	.31

<Table 3> Item analysis of the final items

N=320

factor / item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 Alpha Coefficient
factor 1 : Awareness of self limitation		
42. 지나온 인생이 후회스럽다.	.50	.83
13. 나란 존재는 불쌍하고 무력한 존재이다.	.49	
15.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46	
2. 현재의 내 자신이 불만스럽다.	.44	
12. 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44	
5.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9	
11.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다.	.38	
3. 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34	
31. 내 삶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	.31	
factor 2 : Wish		
17.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58	.82
16. 삶에는 항상 내일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57	
18. 인생이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51	
19. 세상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48	
14. 절망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고 생각한다.	.45	
*21.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0	
factor 3 : Search for goals		
34.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55	.82
38. 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3	
37. 나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48	
39.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46	
9. 나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0	
32. 나는 항상 나의 일에 충실히 왔다.	.39	
factor4 : Love experience		
22. 나는 현재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	.53	.76
24. 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53	
23. 나는 내 심정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	.51	
4. 나는 가족이나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42	
factor5 : Self transcendence		
46. 살아있는 것이 참 고맙다고 느낀다.	.64	.83
44. 매일 매일이 새롭다.	.58	
49. 만일 내일 죽는다하더라도 현재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56	
45. 나는 인생을 즐기는 편이다.	.54	
47. 나는 평소에 잘 웃는 편이다.	.52	
43.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52	
48.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51	
factor6 : Relation experience		
25. 나는 행복했던 기억이 많다.	.59	.81
29. 이 세상에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다.	.57	
30.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	.56	
27.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55	
28. 나는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47	
26. 나는 음악이나 자연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	.46	
factor7 : Self contentedness		
1. 나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	.53	.71
7. 나는 남 앞에서 당당하다.	.46	
10. 내가 여성(혹은 남성)으로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	.45	
6. 나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42	
8. 나는 내 또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다.	.41	
factor8 : Commitment		
35.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63	.74
36.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가족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61	
3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5	
41. 지금 나는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	.48	
*40. 나는 요즘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35	

*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문항임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LISREL

factor	original items	final items	GFI	AGFI	RMR	NFI
1	9	9	.95	.91	.04	.96
2	6	6	.96	.91	.03	.96
3	6	6	.95	.89	.04	.95
4	5	5	1.00	.99	.01	1.00
5	7	7	.98	.96	.03	.98
6	6	6	.99	.97	.02	.98
7	5	5	.98	.95	.03	.96
8	5	4	.99	.98	.01	.99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문항 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FI(Goodness-of-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05보다 적을수록 바람직), NFI(Normal Fit Index: $\geq .90$ 이 바람직)를 이용한 결과 각 영역들은 적합도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왔다<Table 4>.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량 .40, t값 2를 기준으로 2문항이 삭제되어 46문항이 생의 의미 측정 도구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2요인의 21번 문항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가 소망에 대한 문항 요인치 0.39이었고, 8요인의 40번 문항 ‘나는 요즘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가 헌신에 대한 문항 요인치 0.29로 나와 삭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최종 선택된 46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94이었다.

준거타당도 검증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생의 의미 전제 국면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선택하였다. 개발된 생의 의미도구와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한 준거타당도는 $r=.79(p=.000)$ 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생의 의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도구가 4개의 국면(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그리고 자신과 삶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된 생의 의미 개념적 틀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 나타난 8개의 요인들이 생의 의미의 어떤 국면과 관련되는가를 분석하고 문항들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생의 의미와 관련된 개념의 측정도구 및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 1요인인 ‘자기유한성의 인식’은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한계라는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Frankl, 1975). Fabry(1974)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중 첫 번째 것으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현 상태의 자기를 가치로운 인간으로 수용할 때 자기 밖에 있는 의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신과 삶을 긍정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것은 초월성을 지닌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하는 태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적 가치의 실현은 자신과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의미발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Figure 1>. 따라서 이 요인은 의미발견의 전제인 ‘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 및 수용’ 국면에 관련된 개념이며 동시에 태도적 가치실현 과정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oward(1994)는 에이즈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생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자아 가치감, 생의 목적과 의미, 희망의 증진 등을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제 1요인인 ‘자기유한성의 인식’은 생의 의미 요인 중 가장 변량(27.43%)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PIL 문항을 요인 분석한 Reker & Couins(1979)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목적, 목표달성으로 명명한 요인 중에 본 연구의 ‘자기유한성의 인식’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문항이 1개(문항 4 : 나는 생의 목적도 없는 아주 무의미한 존재이다) 있는 것으로 나타나 PIL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PIL은 각 요인에 같은 문항들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어 총점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요인별 변별력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제 2요인인 ‘소망’은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노력의 정도 즉, 인간의 <의미에의 의지>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미에의 의지>는 인간으로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동기이다.

Frankl(1969)은 의미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발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간은 책임성을 가지고 개인의 독자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현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자연과 신 그리고 예술작품 등)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살아온 과거의 삶(추억)과 앞으로 살아나아가야 할 미래의 삶에서 조차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요인은 의미발견의 과정인 ‘경험적 가치실현’ 국면에 관련된 개념이며 동시에 태도적 가치실현 과정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Figure 1).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을 한 Song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희망의 속성으로 삶의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선행요인도 생의 의미와 같이 인생의 주요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대두되며 그 결과도 결국 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들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제 2요인인 ‘소망’ 요인은 제 1요인인 ‘자기유한성의 인식’ 요인 다음으로 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변량(6.73%)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Reker & Couins(1979)의 연구에 의하면 PIL에도 소망요인 관련 문항에 2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문항은 ‘나는 은퇴 후 평소하고 싶었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7번 문항)’와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19번 문항)’인데 19번 문항은 본 연구의 생의 만족 요인에 가까운 문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IL은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개념 중 소망을 측정하는 문항은 1문항만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소망의 속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 진다.

제 3요인인 ‘목표추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업 및 삶의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생은 일종의 과제이자, 의무, 나아가 사명이다’라는 Frankl(1963)의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Frankl은 인간은 자신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을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여 참된 인간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덕목으로 삶의 목표추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목표추구를 위해서는 ‘현 상태로서의 자기’와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사이의 간격, 말하자면 존재와 의미간의 긴장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며 정신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긴장을 피하지 말고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생의 의미실현을 위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 요인은 생의 의미 개념적 틀에 의하면 의미발견의 과정으로서 ‘창조적 가치실현’ 국면에 해당된다. 창조적 가치실현은 개인이 노동이나 취미, 임무에의 열중 같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는 가치실현에 해당된다. 한편 PIL에서는 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목표달성이라는 요인으로 5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생의 목표와 생의 의미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미란 목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닌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의미는 목표 그 자체를 포함할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방향과 열망뿐 아니라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 4요인인 ‘사랑체험’은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경험이나 현재 사랑을 나눌 대상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요인은 의미발견의 과정인 ‘경험적 가치실현’ 국면에 관련된 개념이다. 경험적 가치실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술작품, 자연, 신 및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발견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이 요인은 특히 인간과의 만남을 통한 의미발견의 체험을 강조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Devogler & Ebersole(1980)의 대학생의 생의 의미에 대한 에세이 분석에서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범주로 나타났으며 Frankl(1969, 1975)도 경험적 가치 중 가장 위대한 경험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였다. 여성가장(Choi Kim, Shin & Lee, 2001)과 노인(Shin, Lee, Choi & Kim, 2003)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인간관계와 만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분류되어 인간에게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의미를 주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IL에는 인간관계를 통한 의미발견 문항은 물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사랑을 통한 의미발견 체험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도구는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의미실현의 과정이며 방법인 경험적 가치실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더 타당한 도구라고 볼 수 있겠다.

제 5요인인 ‘자기초월’은 일상적 경험이나 당면한 현실에 대한 개인의 관점과 타인에 대한 지향성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요인은 생의 의미 개념 틀에 의하면 4국면인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 국면으로서 의미 발견의 결과, 즉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상에 관련된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며 이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Frankl은 참된 인간의 본질로서 <의지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초월성(영성)’과 ‘자유’를 도출하였다.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현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생물학적, 심리적 차원의 수준을 초월하여 영적 차원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이며, 인간은 인간존재의 독특한 능력인 ‘자기 초월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자기 이상의 다른 어떤 것 또는 다른 인간을 지향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영성(Spirituality)체험을 연구한 Oh & Kang(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영성체험의 본질로 초월성과 생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PIL에서는 본 요인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문항이 ‘인생목적’이라는 요인에 속하는 총 10문항 중 5문항

이 포함되어 있어 PIL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IL은 각 요인에 같은 문항들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어 총점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요인별 변별력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제 6요인인 ‘관계체험’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와의 관계성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요인은 의미발견의 과정인 ‘경험적 가치실현’ 국면에 관련된 개념으로 ‘사랑체험’이 인간과의 만남을 통한 의미발견의 체험을 강조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이 요인은 좀 더 포괄적인 대상(신이나 자연 및 취미활동 등)들과의 관계를 통한 의미발견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PIL에는 관계체험을 묻는 문항이 없다.

제 7요인인 ‘자기만족’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충족감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요인은 의미발견의 결과로서 ‘자신과 삶에 대한 만족’ 국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의미를 발견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보람찬 것으로 인식하고 만족해하며 즐길 수 있다. Recker & Cousins(1979)의 연구에 의하면 PIL에도 ‘자아충족’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3개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기존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인 PIL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제 8요인인 ‘헌신’은 3요인인 ‘책임의식’과 마찬가지로 의미발견의 과정으로서 개인이 노동이나 취미, 임무에의 열중 같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는 창조적 가치실현 국면에 해당된다. 3요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업 및 삶의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요인은 어떤 일을 스스로 찾아 자신이 속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요인은 개인 자신의 독특한 의미의 추구보다는 대의명분을 향한, 즉 창조적 가치실현의 이타성(Frankl, 1975)을 강조하는 요인이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고,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써 의미실현은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점차 인간 본질의 실현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PIL에는 헌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생의 의미를 ‘참된 인간본질의 실현’이라는 정의를 근간으로 하여 ‘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자신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4개의 국면으로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개발된 46문항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은 생의 의미의 4개의 국면을 고루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도구는 각 요인들에 포함된 문항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PIL보다 요인 변별력이 높고 대상자들에게 내용 전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63문항의 MIL보다 문항수가 적어 사용이 간편하며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표집하여 대표성이 높다. 준거타당도 산출을 위한 자아존중감 척도(본 연구에서 1요인과 7요인에 해당되는)와의 상관도 높아 신뢰롭고 타당성 높은 도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생의 의미를 측정하는 본 도구는 의미요법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생의 의미 수준과 그 내용을 알게 해줌으로써 그들의 생의 의미 발견을 돕는 심리적·영적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의 의미를 측정하는 기존도구의 문제점과 제한점을 개선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 개발과정은 관련문헌 고찰과 성인들에 대한 면담과정 및 생의 의미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4개의 국면으로 구성된 생의 의미 개념적 틀을 완성하고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및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된 49개의 문항을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564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dow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도구의 내적 일관성과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적합도와 단일성 차원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개발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30이하인 20번 문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편이다’라는 1문항을 삭제되었다.
- 선정된 48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이 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변량은 54.98%이었다. 추출된 8개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요인은 ‘자기유한성의 인식’, 2요인은 ‘소망’ 3요인은 ‘목표추구’, 4요인은 ‘사랑체험’, 5요인은 ‘자기초월’, 6요인은 ‘관계체험’, 7요인은 ‘자기만족’, 8요인은 ‘헌신’으로 명명하였다.
- 문항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0.71에서 0.83까지였고, 문항-총점상관계수는 0.30에서 0.65사이에 분포하였다. 48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0.94이었다.
- 도구의 타당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 LISREL을 실시한 결과 2문항이 삭제되어 생의 의미 측정 도구 최종 문항으로 46문항이 선정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21번 문항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와 40번 문항 ‘나는 요즘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최종 선택된 46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94이었다.
- 자아존중감 척도와 상관관계를 통하여 준거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는 $r=.79(p=.000)$ 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더 확인하기 위해 생의 의미와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상관연구가 필요하다.
- 본 도구 척도의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urbank, P. M. (1988). *Meaning in life among older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MA.
- Chang, S. O., & Burbank, P. M. (2000).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0(2), 259-271.
- Choi, S. O., Kim, S. N., Shin, K. I., & Lee, J. J. (2001). A Study on the Meaning in Life of Matriarch; Q-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 Nurs*, 31(4), 548-560.
- Choi, S. O., Kim, S. N., Shin, K. I., Lee, J. J., & Jung, Y. J. (2003). Development of Elderly Meaning in Life(EMIL) Scale. *J Korean Acad Nurs*, 33(3), 414-424.
- Coward, D. D. (1994). Meaning and Purpose in the Lives of Persons with AIDS. *Public health Nursing*, 11(5), 331-336.
- Crumbaugh, J. C., & Maholic, L. J. (1964).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Munster : Psychometric Affiliates.
- Devoglar, K., & Ebersole, P. (1980). Categorization of college students meaning in life. *Psychological Reports*, 46, 387-390.
- Dossey, B. M., Keegan, L., Guzzetta, C. E., & Kolkmeier, L. G. (2000). *Holistic nursing*(2nd ed.). Gaithersburg, MD : Aspen Publication.
- Fabry, J. B. (1974). Ko, B. H. Translation (1989). *The pursuit of meaning : Viktor Frankl, logotherapy and life*. CA. : Hillsborough 94010. Yangyungak : Seoul.
- Frankl, V.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1969).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 of Logotherapy*.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 Frankl, V. (1975). *The unconscious god*. Jung. T. H. Translation (1979). St Paul. Press.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7-129.
- Lee, J. J. (1995). *The effect of nursing- logotherapy on self-esteem, purpose in life and finding meaning, and hope of the patients of mental ill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 Lee, J. J., Shin, K. I., Choi, S. O., & Kim, S. N. (2002).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Measurement Tool. *J Korean Acad Nurs*, 30(4), 982-994.
- Lee, N. P. (2000). *Logotherapy*. HakGiSa : Seoul.
- Recker, G. T., & Cousins, J. B. (1979). Factor structur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ONG test and PIL test. *J of Clin Psychology*, 35, 88-91.
- Rosenberg, M.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16, 829-860.
- Shin, K. I., Lee, J. J., Choi, S. O., & Kim, S. N. (2003). Meaning in Life of Elderly : Q Methodological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4(4), 631-648.
- Song, M. S., Lee, E. O., Park, Y. S., Hah, Y. S., Shim, Y. S., & Yu, S. J. (2000). The Concept Analysis of Hope : Among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J Korean Acad Nurs*, 30(5), 1279-1291.
- Oh, P. J., & Kang, K. A. (2001).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J Korean Acad Nurs*, 31(6), 967-977.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Choi, Soon-Ock · Kim, Sook-Nam · Shin, Kyung-Il · Lee, Jong-Ji¹⁾

1)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aning of life scale with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 A conceptual framework composed of 4 phases of meanings of life was identified. And 49 preliminary items on a 4-points scale were developed through content validity. A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the 49 items was conducted on 564 adults. By means of internal consistency of the 49 items, 1 item was deleted. To verify the 48 item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LISREL were done. **Result:**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48 items, 8 factors were extracted. These factors were labeled as 'self-awareness and self-acceptance', 'hope', 'responsibility awareness', 'love experience', 'self transcendence', 'relation experience', 'self contentedness', and 'Commitment'. Through LISEREL of the 48 items, 2 items were excluded and finally 46 items remained. Cronbach's Alpha of the 46 items was .94.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Self-esteem scale was .79. **Conclusion:** By the above results, the researchers recommend the followi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eaning of life are needed for criterion validity of this scale. Studies on meaning of life of different groups, and subjects are needed for reverification.

Key words : Nursing, Holistic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Soon Oc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gok 3-dong Kumjeong gu Pusan, Korea
 Tel: +82-51-510-0726 E-mail: sochoi@cup.ac.kr